

보도해명자료

(’18. 4. 19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5000만 의료데이터 거래시장 열린다” (18.4.19, 매일경제)

1. 기사내용

- ☐ 산업부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에 대학병원 등 40개 기관이 참여하여 5월 시범사업 착수 예정
 - 5천만 환자의 진료정보를 사고파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들이 활용 가능하며, 해외에 데이터를 팔아 수익도 기대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☐ 의료 데이터를 사고파는 거래시장이 열리고 해외에 데이터를 판매한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
- ☐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은 병원별로 상이한 의료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연구에 활용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임
 - 동 사업은 원본데이터를 병원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 연구결과만을 제공하는 것으로, 의료 데이터를 사고파는 것이 아님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김선기 과 장(044-203-4390)
서성태 서기관(044-203-4391)